

완도,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연계 총력

5대 전략에 해양치유·바이오헬스 등 포함
블루존 TF 미래 지향 사업수립 등 박차

완도군이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완도의 즐거운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5대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바다, 섬, 갯벌, 기능성 천연자원 등 전남의 블루자원을 활용한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메디컬, 스마트 블루시티 등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이다.
5대 전략에는 완도군에서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헬스산업, 해양관광 거점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군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중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구축하는 블루 바이오 프로젝트는 천연물·지

유 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남형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하기 위해 완도 해양치유산업에 집중 육성한다.
완도군은 2021년까지 320억원을 들여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해양치유 센터를 건립한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스포츠 재활치료 등 의료관광 산업 수요에 대비하는 중이다.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110억원을 투입해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단지를 조성해 공동협력 연구소, 해양바이오 스타트업 30개 유치 등 해양바이오헬스 산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1년에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열어 식용산업에 머무는 해조류산업을 바이오 에너지, 뷰티, 의약품 개발 등 산업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완도해조류박람회는 정부로부터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을 획득,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헬스 산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70만 명의 해조류가 필요하다"며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에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양치유 블루존 TF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역동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평화와 화합의 섬 '삼학도' ...어제와 오늘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이 8일 목포 삼학도에서 개막했다.
이날부터 3일간 대한민국 섬의 미래를 만나게 될 삼학도는 목포 사람들과 화노애락을 함께 해 온 목포의 상징이다. 매립으로 본래 모습을 잃었으나, 그동안 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섬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한 청년을 사랑한 세 여인이 죽어 학이 됐고, 그 학이 떨어져 죽은 자리가 섬이 됐다는 전설을 가진 삼학도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위치하는 등 평화와 화합의 섬으로도 불린다.
/목포=박승경 기자

철재·자동차 수출 목포항 물동량 전인

올 상반기 1,124만t 처리...전년 대비 2.5% ↑

철재와 수출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목포항 물동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목포항의 올 상반기 물동량이 1,124만t으로 전년 동기 1,097만t 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철재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 증가로 263만t을 처리해 전년 동기 160만t 대비 63.7% 증가했다. 또 자동차는 광주기아차의 수출 물동량

증가로 25만대를 처리해 전년 동기 23만대 대비 8.2% 늘어났다.
유류와 시멘트는 내항 간 수요 물동량의 증가로 각각 66만t과 51만t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반면, 모래는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금지로 물동량이 크게 줄면서 전년 대비 93.7% 감소한 3만t 처리에 그쳤다.
수출입 화물은 철재, 자동차 품목의 물동량 증가로 389만t을 처리해 전년 310만t 대비 25.4% 증가했고, 연안화물은 모래 등 일부품목의 물동량 감소로 735만t을 처리해 전년 786만t 대비 6.5% 감소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철재 및 수출자동차 물동량이 늘면서 올 상반기에 증가세를 나타냈다"며 "물동량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진도 전북 유통사업 지원 확대

가두리 시설 현대화 등 추진

진도군이 전북 출하 시기에 맞춰 전북 유통사업 지원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부진 등 여파로 전북 판매단가와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고, 어린 전복(치패)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고품질 진도전복 생산과 판매단가 유지, 전북 유통 등 전북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에 기반한 육상 순환여과식 양식장(1개소, 50억원), 전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어린전복(치패) 방류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복 가격 하락과 내수 악화로 침체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퇴적층 조사, 심사비용 등 전북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인증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식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이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해남군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5일간 '2019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목포사랑 상품권 내달 출시 앞두고 NH농협과 총괄 판매대행점 협약

목포시가 오는 9월 '목포사랑 상품권'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NH농협과 '목포사랑 상품권' 총괄 판매대행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목포사랑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시가 발행하며, 목포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판매대행점 47개소를 대상으로 판매관리시스템 설치 및 매뉴얼을 점검한데 이어 28일 판매 및 환전관련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사랑 상품권의 올 발행 규모는 100억원으로 액면가 3종(5,000원, 1만원, 5만원)으로 발행된다. 개인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연 400만원)이다.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도소매업, 숙박업, 학원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장, 본사가 목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는 평상시에는 6% 이내, 명절 기간에는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 한여름밤 문화축제 '후끈'

10일까지 가요콘서트·영화상영 등 이어져

해남이 한여름밤 축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5일간 '2019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펼쳐지는 문화축제는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가요콘서트와 뮤지컬 갈라쇼, 최신 개봉영화 야외상영 등이 계속된다.
지난 7일 송가인과 백지영, 두리, 나건필 등이 출연해 열린 가요콘서트는 1만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군민광장에서 열정의 무대를 연출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갈라쇼도 국내 대표 뮤지컬 배우인 최정원, 이태원, 박혜미 등이 출연해 입석까지 매진되는 등 인기리에 진행됐다.
8일에도 개그맨 배동성의 사회로 가수 코요태, 서문탁, 박상철, 최유나 등이 출연하는 가요콘서트도 열기가 이어졌고, 9-10일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신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9일 오후 7시에는 영화 라이온 킹, 10일에는 오후 3시 레드슈즈와 오후 7시 엑시트가 상영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영화 상영 1시간 전부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는 해남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61-530-5140.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강진 작천면, 도로변·소공원 풀베기 작업

강진군 작천면은 최근 면 소재지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다.
작천면은 지방도 827호선과 군도 6호선 등 주요 도로 20km 구간과 평리교 쉼터와 소공원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경면 면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과 작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 우리지역 바로알기 평생학습 종강

목포시는 우리지역 바로알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목포역사와 이야기'가 지난 3일 삼학도 현장학습을 마지막으로 종강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9일부터 주간반 50명과 야간반 50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업은 이론학습을 비롯해 화신연세점, 근대역사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으로 운영됐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읍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복달임 행사

진도군 진도읍새마을부녀회는 최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사랑의 복달임 행사를 열었다.
진도읍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수박과 국수, 설렁탕 등을 38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박선옥 회장은 "정성껏 마련한 복달임 음식을 드시면서 무더위를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